



게임کم 이스 II 스페셜 2부

복잡한 셀문 신전

셀문 신전 안으로 들어간다. 이곳은 매우 복잡하므로 지도를 그리면서 하는 것이 좋다. 먼저 서쪽의 수로 쪽으로 가면 나다레스가 있는 곳이 나온다. 그곳으로 가면 나다레스가 신전을 나가라고 하면서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한다. 나가기를 거부한 아들은 그만 마을이 되어 버리고 나다레스는 사라진다. 나다레스가 있던 곳의 위쪽으로 문이 하나 있다. 서부 수로로 통하는 길이다. 서쪽에는 조종실의 문이 있지만 잠겨있다. 또 계단 같은 것이 있지만 물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 남서쪽으로 가면 잠긴 문이 보인다. 문을 열려고 하자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마을 키스를 피해 도망쳐 나오다가 숨어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라미아 마을의 레크 할아버지에게 가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한다. 라미아 마을로 가서 레크 할아버지를 만난다. 할아버지는 신전 서쪽의 방에 있는 성배가 저주를 풀어주는 힘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러면서 다비의 구슬을 건네준다. 구슬을 가지고 빛의 문으로 간다. 이 문은 다비의 구슬로 열 수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빛의 마법(Light)을 쓰면 방 안에 상자 하나가 보인다. 성배는 바로 이 상자 안에 있다. 성배를 찾은 아들은 다시 라미아 마을로 가서 레크 할아버지를 만난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마을로 변한 아들을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준다. 수로에 숨어 있던 사람들에게 간다. 수로로 가면 잠겼던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함께 도망나오다 뒤쳐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여신의 왕궁은 여신의 길을 따라가면 갈 수 있다면서, 그 길에는 여신상이 있는데 여신의 펜던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나갈 수 있다고 키스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알려준다. 안쪽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그는 남쪽 신전의 열쇠를 준다. 이 때 라무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모두 돌로 만들어 버린다. 이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일단은 경비병 같은 마을 네 마리가 있는 곳으로 간다. 텔레파시 마법으로 마을들과 이야기를 한다. 마을들은 길을 지나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을이 하나 보이는 방에서 텔레파시 마법을 사용해 그 마을을 속이면 통행증을 발급해 준다. 이 통행증을 가지고 마을 네 마리가 지키고 있던 곳으로 가자. 텔레파시 마법을 사용한 다음, 통행증을 사용하면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다. 일단 방을 뒤져 환영의 거울을 갖는다. 막힌 신전의 문을 남쪽 신전의 문열쇠로 열고 동부 수로로 간다. 입구 근처에서 얼마 안가면 키스가 서있다. 그는 아들에게 수로 조종실문 열쇠를 건네준다. 이 열쇠를 가지고 서부 수로로 간다. 서부 수로의 막힌 수로 조종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레버가 보인다. 수로의 물을 조정하는 레버이다. 레버를 내리면 바닥의 물이 모두 빠진다. 이로써 아까 가지 못했던 계단으로 갈 수가 있다.



키스는 아들에게 조종실문 열쇠를 준다.

계단으로 내려가 비밀 장소로 간다. 그 곳에서 아이템을 얻고 또 수로 중부로 통하는 길에서도 아이템을 갖는다. 다시 수로 서부로 와서 밖으로 나가 수로 동부로 간다. 키스가 서있던 곳 아래쪽으로 가면 북쪽의 신전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신전의 북쪽으로 간다.

검은 진주

북쪽의 신전에서는 맨 처음에 종탑으로 간다. 그러면 마리아가 보이는데, 종이 다섯 번 울리면 자신은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고 한다. 탑 꼭대기로 올라가자. 탑을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종이 한 번 울린다.

꼭대기에 다다르면 다섯번 째 종이 울리게 된다. 가운데로 가보면 사다가 돌로 변해있다. 다시 1층으로 가면 마리아가 쓰러져 있다. 여신의 신전으로 간다. 신전 안에는 크레리아 글러브가 상자에 있다. 두 개의 석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석상과 이야기를 하면 꿈의 석상과 검은 진주가 있어야 돌로 변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석상 뒤쪽으로 가면 사랑의 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 그곳으로 내려가 상자를 찾아 열면 꿈의 석상을 가질 수 있다. 석상을 갖고 나온다. 이제 리리아를 찾으러 간다. 리리아는 어느 방의 철창 속에 갇혀 있다. 리리아와 이야기를 하면 그녀는 은의 펜던트를 주고 사라진다. 밖으로 나오면 마물이 공격을 하는데 이 마물은 부딪치기만 해도 물리칠 수 있다. 남부의 신전으로 가서 은의 펜던트로 은의 문을 열면 마물이 나타난다. 이 마물을 물리치면 검은 진주를 얻게 된다. 검은 진주를 가지고 다시 여신의 신전으로 가면 검은 진주는 꿈의 석상 눈에 끼워진다. 꿈의 석상을 가지고 다시 종탑으로 가자. 종탑 꼭대기로 가면 꿈의 석상은 새가 되어 날아간다. 이로써 돌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저주에서 풀려난다. 사다와 이야기를 한다. 사다는 마리아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 마리아는 1층에 있다고 하자 그곳으로 간다. 1층으로 간 마리아가 죽은 것을 안 사다는 크레리아의 칼을 아들에게 준다. 칼을 가지면 라미아 마을의 고트 아저씨로부터 리라의 소라껍질을 통해 통신이 들어온다. 크레리아 갑옷을 구했다고 마을로 오라는 것이다. Return 마법을 사용하여 마을로 돌아간 아들은 갑옷을 받는다. 그리고는 여신의 신전으로 가서 사랑의 샘으로 간다. 그러면 끝 쪽에 리리아가 보인다. 리리아와 이야기를 하면 금의 펜던트를 준다. 이제 이전의 여신의 증표를 가지고오라고 했던 곳으로 간다. 여신상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길을 따라가면 수로의 동부가 나온다. 계속 길을 따라가면 계단이 보이고, 그 앞에는 문이 있다. 계단을 올라가 문으로 들어가면 마물이 나타난다. 이 마물은 능력이 80 이상은 되어야 공격할 수 있다. 마물을 없애고 위쪽으로 들어가면 폐광이 나온다. 폐광 안에는 신관의 후예들이 길을 알려준다.

이스의 여신, 레아

길은 두 갈래이다. 왼쪽으로 가려하면 여신의 걸계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한다. 오른쪽 길로 가면 리리아가 있다. 리리아와 이야기를 하자 여신의 반지를 준다. 여신의 반지를 가지고 여신의 걸계를 통과한다. 마지막 여신상이 있는 곳으로 간다. 피나와 레아가 마법에 걸려 있다. 피나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다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두 명, 그런 상태로는 날 쓰러뜨릴 수가 없다. 여신을 잃은 따위의 인간은 무섭지도 않다. 700년 전, 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이 두 명의 여신에게 봉인당했다. 굴욕의 700년의 세월은 지나고, 나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이스는 모두 나의 것이다. 인간들에게 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순간, 고반과 투테가 나타나 아들에게 은의 하모니카를 준다. 아들이 레아가 연주했던 곡을 연주하자 여신의 저주가 풀리는 것이 아닌가. 저주가 풀리면 여신들과 레아와 이야기를 한다.

"아들, 전 지금은 이스의 여신 레아예요. 다크팩트는 팩트의 자손인데 크레리아의 잠자는 마력에 매료되어 그 마력을 이용해 마물의 봉인을 풀어 세상을 자기 것으로 하려던 것이었어요. 일찍이 우리들은 마물을 봉인하면서, 크레리아도 깊숙히 묻었어요. 수 백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것이 다시 은으로 파내어진 것이예요. 그것 때문에 마물은 다시 나타나고 세상은 다시 어둠에 빠졌어요. 지금 마의 원흉과 싸울 때가 온 것이예요. 아들이라면 해내리라고 믿어요. 자 아들 그 검에 이스의 집결된 힘을 불어 넣겠어요."

그러자 크레리아의 칼은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이제 투테와 이야기를 나누자.

"아들, 오랜만이에요, 전 투테젠마. 크레리아의 방패를 찾아왔어요. 마의 원흉인 다므는 크레리아로 만든 무기로 밖에 처치할 수 없어요."

아들은 크레리아 방패를 받는다. 모든 갑옷과 무기, 방패를 크레리아로 만든 것으로 바꾼다. 북쪽의 문으로 들어가자.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위해.



다르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아돌

마물은 검은 진주를 들고 있고 거기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마물의 주위에 있는 보호막에서도 레이저가 나온다. 마물이 레이저를 쏜 다음, 검은 진주를 공격하면 쉽게 마물을 물리칠 수 있다. 다르가 죽으면 게임은 끝나고, 밖으로 나온 아돌은 신관의 후손과 여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마무를 물리친 아돌은...

분석을 마치면서

예전에 8비트 MSX에서 했던 게임과는 내용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지만, 거의완벽하게 컨버전을 한 것 같다. 사운드나 그래픽도 수준급이다. 특히 게임 중에 단군의 탐이라든지, 게임 제작실이라든지 숨겨진 작은 이벤트들이 있어 좋았다. 하지만, 초기 버전의 경우 버그로 인해 게임의 맥이 끊겨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물론, 버그를 없애는 파일이 PC 통신에 올라오긴 했지만...

장르	볼플레잉				
제작	Falcom				
사운드	☆	☆	☆	☆	
그래픽	☆	☆	☆		
난이도	☆	☆	☆		

가격 : 3만9천원

분석 : 정일현

자료협조 : 한도흥산무역(만트라)

